



국무총리비서실, '26년도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참가자 공개모집

-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1·2차 참가자 통합 공개모집
-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,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참가자 선발 예정

-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혁신 기여도를 높이고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2일(월)부터 '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'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연수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(재)희망제작소와 위탁용역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. 본 사업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현안과 연계된 해외 우수사례 현장 학습을 지원하고 연수 결과를 국내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.
- 특히 올해 사업은 기존의 정형화된 연수 틀을 벗어나, 현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'제안형 연수 프로그램(2차)'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. 이번 공모는 1차와 2차 연수 참가자를 동시에 모집하는 통합 공고로 진행된다.
 - 1차 연수(지정형)는 '시민사회 주도 지역재생 및 공동체 경제 모델 연구'를 주제로 이탈리아(볼로냐, 트렌토 등)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활동가 10여 명을 선발한다.
 - 2차 연수(제안형, 시범 도입)는 참가자가 국정과제나 시민사회 현안과 관련된 주제 및 방문국(기관)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□ 지원 자격은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소속되어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.

□ 접수기간은 6월 22일(월)부터 7월 17일(금)까지이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최종 참가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선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국무총리비서실 및 (재)희망제작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.

*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비서실(<https://www.opm.go.kr>), (재)희망제작소(<http://makehope.org>) 참조

□ 국무총리비서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은 “올해 처음 시범 도입되는 제안형 연수를 통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형 대안을 발굴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전국의 역량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”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	책임자	과 장 전정관 (044-2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송고운 (044-200-2852)

